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마 6:9-12)

Forgive Us Our Debts (Matt. 6:9-12)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 된 이유도, 구원과 축복과 소망과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도 모두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도, 마음의 평안도, 진정한 승리와 축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짧은 기도 안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를 용서 받아야 한다는 것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reasons why we were cut off from God, not able to enjoy salvation, blessing, desire, and victory, were all taken care of by Jesus coming into this world and dying on the cross by our sins. The wages for sin is death. Salvation, peace of mind, real victory and blessing cannot be made without solving the problem of sin.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In this short prayer, it reveals that we are sinners, our sins must be forgiven, and we must first of all forgive our debtors in order that we may be forgiven our debts.

1. 우리들의 죄

죄는 헬라어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파라바시스, 아노미아, 오펠레이마타 등이 있는데 주기도에 나오는 죄는 오펠레이마타, 즉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빚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중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들의 죄’는 ‘오펠레이마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 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죄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됩니다.

2. 죄 용서

만일 우리가 “내게 무슨 죄가 있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한 두 가지의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없이 죄책감에 눌려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기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죄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쉽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3.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

죄를 용서받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 더 크고 깊어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매일 나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후 곧바로 이 부분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마 6:14-15).

여기에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사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으로까지 나아가라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차에 돌아보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Our sins

The word ‘sin’ has a few words in Greek: hamartia, parabasis, anomia, opeleimata, etc. Opeleimata used in the Lord’s Prayer means that something that is needed to be paid is not paid, in other words, owing something to someone. ‘Our sin’ in the Lord’s Prayer is ‘opeleimata’. That means “Take our debts away! As we eliminate debts from our debtors.”

Like this, if we recognize our sins, ask forgiveness of our sins, and receive Jesus Christ as our individual savior and owner, we are able to receive a wonderful power of being God’s children.

2. Forgiveness of sins

If we say, “I am not guilty?” we deceive ourselves, and there is no truth in our mind. We are clearly sinners. However,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f we confess our sins, God who is truthful and merciful forgives our sins with the precious blood according to His Promise and cleans us from all of the injustice.

According to this truth, we must be careful of two extreme things for the forgiveness for our sins. The first is that when we confess to Jesus Christ, we still live our lives uncomfortable by being tormented under a sense of guilt, for we lack the conviction of salvation and happiness through faith. Our faith should keep a balance between the tears of confession and the happiness of forgiveness. The second is that because we think that our sins are forgiven by God, we look away from the seriousness of sin and easily continue to endlessly commit sin.

3. The condition for the forgiveness of sins

The first condition of which we are forgiven is that we rely on the contribution of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The grace and love of Jesus Christ’s Cross are greater and deeper than any other sins, so that there is not any sin not to be forgiven. Therefore, every day we must come before Jesus’ Cross.

Nevertheless, Jesus teaches us the prayer,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right after Jesus taught how important this prayer is in the Lord’s Prayer, He emphasized only this phrase (Matt.6:14-15).

Here, we are not the people who just live our lives by our sins being forgiven, but live lives in which we must forgive, accept, and love each other with Jesus Christ’s love. In other words, the life of reaching wonderful joy and happiness is filled with Jesus’ earnest desire.

My beloved Christians!

By taking care of each other, forgiving with Jesus’ love, and accepting each other,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and I will enjoy God’s salvation and blessing for us and live our lives to the fulle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랑과 섬김, 나눔과 감동의 축제 2012 사랑의 바자

9월 20일(목) ~ 21일(금)

사랑과 섬김, 나눔과 감동의 축제, 2012 사랑의 바자(위원장: 김광신 장로)가 이달로 성큼 다가왔다.

이번 바자는 생명의 우물 파기, 미자립교회 돕기, 이웃 돕기, 탈북난민 돕기, 아가페 타운 건립을 목표로 하며 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주일에는 박노철 목사와 당회원, 바자위원들 참석하에 사랑의 온도계 시작행사를 개최하였고, 아울러 '사랑나눔 A+ 1% 나눔운동'과 '사랑나눔 A+10% 절제운동'에 따른 약정현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온 성도들은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각 가정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소장품들을 기증하여 주기 바란다. 바자 수익금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소

외된 장애인과 노인들과 탈북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것이며 또한 계속 되는 아가페 타운 건립을 위해 사용한다.

서울교회 앞마당과 1층 로비, 7층과 8층 식당 그리고 한티공원에서 열리는 바자는 주로 성도들의 기증품 위주로 판매되며 추석 선물 등을 위하여 농수산 특산품을 준비할 예정이므로 성도들은 이번 바자 기간 동안 추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더욱 좋다.

이번 바자를 위해 교구에서는 미리 준비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한다. 바자는 기간 중 오전 10시에 개장하여 오후 7시에 폐장한다.

김문훈 목사 초청, 금요기도회 9월 14일(금) 오후 8시20분



김문훈 목사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초청 금요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영적 도전과 충전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김문훈 목사 약력은 다음과 같다.

- 고려신학대학원(M. Div.) 졸업
- 고신대학교 대학원(Th. M.) 졸업
- 고신외과대학교, 간호대학 교목 역임
- CTS TV 밀레니엄 특강 강사
- CBS TV 파워 특강 강사
- C3 TV 명설교 강사
- 부산 포도원교회 담임목사

2012 성경암송대회

암송범위: 빌립보서 1-4장(전장)

예선-10.14(주) 교회학교별 / 본선- 10.19(금) 오후 7시, 602호

페이스북 서울교회익투스(<http://www.facebook.com/seoullichthus>)

매일 국문 영문 그림 Q.T 서비스 실시

2012 성경암송대회가 오는 10월에 열린다. 암송범위는 빌립보서 1-4장(전장)이며 10월 14일(주) 각 교회 학교 별로 예선을 치르고 10월19일(금) 오후 7시 602호에서 본선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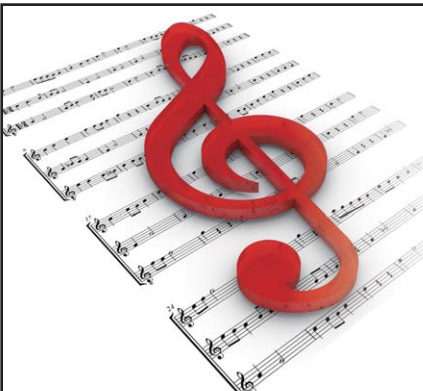
특히 IT 미디어부(부장:오정수 장로)는 서울교회 익투스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seoullichthus>)에 매일 빌립보서를 국문, 영문으

로 두 구절씩 그림 Q.T 형식으로 올리 고 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성도들은 매일 올라오는 성구로 Q.T와 성경 암송을 병행하여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바란다.

서울교회 익투스페이스북은 네이버, 다음에서 '서울교회 익투스'로 검색가능하며 그림 Q.T는 회원 가입없이도 볼 수 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려 부러우지 아니하는 이 일을 두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영명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골로새 1:27-28)

What happens,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Then, whether I come and see you or only hear about you in my absence, I will know that you stand firm in one spirit, contending as one man for the faith of the gospel without being frightened in any way by those who oppose you. This is a sign to them that they will be destroyed, but that you will be saved-- and that by God. (Philippians 1:27-28)



서울 음악교실 오늘 개강 오후1시 30분 - 601호

찬양대원으로 봉사 하시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개설된 서울 음악교실이 오늘 개강합니다.

음악교실에서는 기초적인 발성법, 호흡법, 계명창법, 리듬, 박자, 지휘법, 유명합창단의 음악감상, 유명 성가곡 부르기 등 다양한 음악 이론을 10주간에 걸쳐 기초부터 쉽게 공부하게 됩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62]

(문 60) 아론이 죽은 곳은 정확하게 어디였습니까?

(답) : 신 10:6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부근에서 일어난 일을 모세에게 회상케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브에롯 브네야 아간은 아간의 아들들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아간은 에서의 후손이므로 에돔 땅 어느 변경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민 20:28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거기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민 33:38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기사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세라에서 호르산까지는 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호르산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P.A. Verhoef in Tenney,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4:279) 마치 호렙산을 시내산으로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이론을 뒷받침할만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에서 언급된 호르산 근처에 모세라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도 느보산을 페트라를 넘겨다 볼 수 있는 4,800ft. 높이의 예벨 네비 하룬산(Jebel Neby Harun)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경계선이라고보다 오히려 에돔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비가 없이는 오를 수 없는 험한 바위산이며 그 정상이너무 우뚝 솟아서 아래에서 쉽게 쳐다볼 수 없어 그곳이 느보산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Stephen Barabas(in Tenney,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3:201)는 예벨 마두라(Yebel Madurah)를 아론이 죽은 장소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에돔의 서북 국경지대에 있는 Kadesh의 동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의 정상은 민 20:27이 말씀한 것처럼 산 밑에서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모세라의 지역에 호르산이 있는지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산 근처에 모세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론의 역사적 죽음은 각각 다른 시각으로 말한 것이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주 계속)

한국장로교총회창립100주년기념대회

온 장로교회가 하나로!

우리는 한국장로교총회창립100주년기념대회를 2012년 9월 1일(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27개 장로교총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열게 되었다.

이는 1912년 9월 1일 평양에서 조선야소교장로회총회 창립 이래 지난 한 세기동안 대내외적으로 성장 발전 확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심을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한다. 이와 함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과제에 크게 도전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민족 구원은 물론 그 삶을 변화시켰고 이에 우리 겨레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인간으로서 새로운 세계관에 눈을 뜬 거듭난 존재가 되도록 인도했다고 믿는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 한국장로교회는 과거의 영욕에 얽매이지 않고 사막에 물이 나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새로운 비전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다음의 사항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한다.

- 다 음 -

1.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 말씀에 근거한 개혁교회 신앙과 신학을 따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다짐한다.

- 2. 우리는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분열된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한교단 다체제의 출발을 선포한다. 선(先)선포, 후(後)조지의 순서를 따라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총회의 헌법을 각 교단 총회에 부의(附議)하여 이를 수락한 총회가 한교단 다체제의 연합총회 회원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된다.
- 3. 우리는 2015년 광복70주년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포로 70년만에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빛으로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 4. 우리는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길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북한 동족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작금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국경을 넘어선 탈북자를 위한 난민촌 건립을 두만강 또는 압록강 인근에 UN은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5. 우리는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구현

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복음명령과 함께 감당할 것을 확신한다.

- 6.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따라 피조세계인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며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를 바르게 유지하여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부합된 신행일치의 삶을 살 것을 천명한다.
- 7. 우리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과 영적전쟁을 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총회는 새로운 100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2012년 9월 1일 한국장로교총회창립100주년기념대회 참석자 일동

(사진: 윤요셉 집사)



한교단 다체제 선언문을 낭독하시는 이종윤 원로목사



2012 사랑의 바자

사랑과 섬김의 축제

백승갑 집사(7교구, 바자 기획부장)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도 슬그머니 가버리더니 아침 저녁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바자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2012 사랑의 바자는 지난 8월 26일 박노철 담임목사와 당회원, 바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온도계 수은주를 올리며 시작을 알렸고, 현재 교회 1, 2, 8층에서 '사랑나눔 A+ 1% 나눔운동'과 '사랑나눔 A+, 10% 절제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

니다. 특히 특판부에서 추석을 앞두고 선물 세트를 여러 가지로 준비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선물이 필요한 성도님들은 저렴한 가격의 바자 특판부를 이용하여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보다 더 힘들고,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이웃과 놓아준 미자립교회를 돕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설정한 금년도 바자 목표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편 바자에 참여하시길 희망하지만 직장 또는 학교 공부 등 바자 당일 참여가 어려운 분들께서는 주일 1, 2, 3부 예배 후와 수요일 1부 예배 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랑의 온도계 행사 및 사랑나눔 A+운동, 특판 선물용품 구입 및 헌옷, 기증품 등 여러 행사에 참여 바랍니다.

금년 사랑의 바자는 서울교회 성도 모두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사랑과 섬김, 나눔과 감동'의 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물반석교회 증축 감사예배

만세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길...

김광신 장로(12교구)

영덕에서 북으로 가는 동해길에 바다를 끼고있는 작은 어촌마을 노물리가 있습니다. 30년전 민가를 빌려 노물반석교회를 세워서 첫예배를 드린 후 오늘에 이르렀으나 어촌교회의 고난은 끝이 없었습니다.



노물반석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들은 서울교회가 교회당과 사택 구

조변경과 증축을 위해 후원한 지 일년이 지나 2012년 9월 5일 노회 임원과 동네 어르신들을 모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박노철 목사님은 설교를 통하여 “노물반석교회가 부디 만세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

라”고 하였습니다. 노물반석교회는 감사하는 뜻으로 서울교회와 오정수 장로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아담하고 아름답게 리모델링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그곳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며, 서울교회에도 진심어린 감사를 전했고 동행한 장로님들도 깊은 감동 가운데 서울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 만큼 다른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습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웬시바중창단(단장:우렁찬 성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중창단으로서 오늘 찬양드릴 곡은 "평강의 하나님", "사랑은", "만왕의 왕"등 세곡을 입아름 성도의 피아노 반주로 연주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일(수) 한국로잔위원회 월례세미나에서 설교한다. 14일(금) 한국장로교연합총회 헌법위원회를 소집한다. 15일(토) 종교개혁500주년 월례세미나와 명저번역위원회를 소집한다.
- 개인전: 이준석 성도(12교구) 『빛으로 그리다』 9월 5-11일, 종로구 인사동 133 노암갤러리(02-720-2235-6)
- 표창: 6교구 김윤수 성도 2012 성남시 사회복지사의 날, 성남시장 표창
- 주간식당봉사: 제2스데반회(9.9) 제1권사회(9.16)
- 금주의 식사: 손병석 집사 김현정 권사 가정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꿈나무 영어성품 스쿨 개강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어린이

김안성 목사(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 지도)

지난 9월 1일 토요일,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이 드디어 제 1회 입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은 앞으로 32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9:30-12:30에 진행됩니다. 정철영어성경학교에서 출간된 교재로 복음 내용을 영어로 배우는 1교시 수업과,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 정의한 12가지 좋은 성품을 교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우고 연습하는 2교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학 감사예배 때, 박노철 담임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벵후 1:3-4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이들은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꿈을 품고 살아가기를,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입학 감사예배에는 제 1회 입학생 34명 전원과 선

생님, 학부모님, 목사님과 장로님,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 주신 분들, 또한 발전기금을 쾌척해 주신 장로님과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입학할 어린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오면서, 매주 장시간의 준비모임에 성실히 참석하시고, 8주간 성품교사교육과 28시간 집중 영어교사교육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힘든 일, 자질구레한 일을 마다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준비해 오신 열두분의 자랑스러운 선생님들과 늘 기도와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홍성주 부장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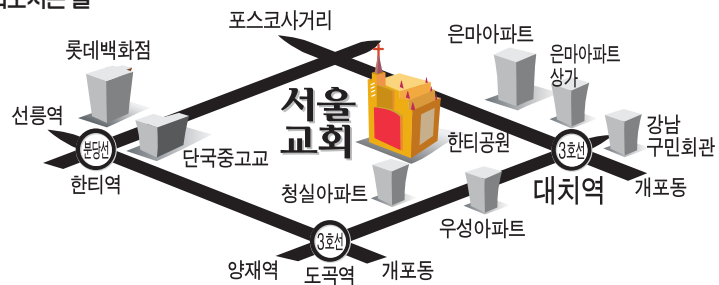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을 통해 복음을 영어로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회 모든 가족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3회선

3회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랑 나눔 A+ 운동, 사랑의 온도계, 그리고 9월 20-21일에 열리는 사랑의 바지를 통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모여지도록
2. 김문훈 목사 초청 금요일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으며 기도와 응답의 풍성한 기를 되도록
3. 우리교회 후원으로 증축입당감사예배를 드린 노물반석교회가 지역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